

‘여성언어’ 인기. ‘권력없는 언어’ 인기

과장된 겸손·허황된 표현 많고 유머감각은 부족

권력 없으면 남성도 여성적 언어 사용

홍연숙/한양대 교수, 언어학

“똑같은 사업가라도 남자가 장인 경우는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여자 사장인 경우는 ‘악발이’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생신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남) 사장과 여 사장을 구별하는 법”이란 글로써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꼼꼼한 경우에, (남)사장은 매사에 자상하고 여사장은 사소한 일에 까다롭다고 한다. 끝까지 일할 때, 남자는 관찰한다고 하고, 여자는 시간맞추어 일을 끝낼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는 단호하다고 하는 반면, 그녀는 딱딱하다고 한다. 남자의 의견은 좋은 판단이고, 여자의 의견은 편견이라고 한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경우에도 그는 경험자이고, 그녀는 굴러먹었다고 한다. 남자는 두려워 않고 소신껏 말한다고 하면서, 여자는 그렇게 하면 말이 많다고 한다. 권위문제에 있어서도 남자는 위엄이 있다고 하면서, 여자는 권력에 미쳤다고 한다. 말이 없는 남자는 과묵하고 말이 없는 여사장은 응큼하다고 한다. 남자는 성공의 ‘사다리’를 차곡차곡 올라갔고, 여자는 ‘잠자리’를 통하여 정상에 올랐다고 한다.”

언어에 나타나는
성고정 관념

서양뿐 아니라 우리 말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로 언어는 우리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언어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지어 지는 것일 뿐이다.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다. 이준 열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자지만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도 우리 사회의 남녀의 역할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예컨대 “내 사촌은 교수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사촌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 간호원은 내 사촌이야” 했을 때는 보통 그 사촌이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남녀 직업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상당히 굳어져서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가 남을 정도이다.

“어느 소년이 자기아버지와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로 들어 온 키가 큰 외과의가 피투성이의 소년을 보는 순간, ‘이런, 내 아들 용식이 아니냐?’



하고 소리쳤다.

의사와 소년의 관계는?”

이 일화를 듣고 의사가 소년의 계부나 대부나 하는 대답이 많고 소년의 어머니라는 대답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대개 남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국회의원, 비행사, 총장, 교수, 외교관, 사장 등도 남성명사로 생각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변호사, 여국회의원, 여의사 등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간호원, 모델, 유치원 선생, 산파, 창녀 등은 여성명사로 이해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자를 앞에 붙여 ‘남자모델’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위의 직업들이 전통적으로 한쪽 성(性)이 전담해 왔던 데에 기인한다.

남존여비 사회가
여성적 어휘·문법 만들어

남성지배하의 사회는 어휘에도 반영되고 있다. 영어의 man은 ‘남자’이외에 ‘인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woman에는 ‘여자’라는 뜻밖에 없다. mankind ‘인류’, chairman ‘과장, 의장’, freshman ‘입학년생’ 등에서도 man이 남녀 양성을 다 대표하고 있다. 영어의 대명사도 he가 남자를 다 대표하는 반면, she는 여자만을 지칭한다.

우리말에서도 ‘자식이 많다’, ‘기독교인들의 형제’ 등에서 ‘자식’, ‘형제’는 남자를 다 포함하지만 여식, 자매는 여자만을 가리킨다. 또,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회는 남존여비의 어휘와 용법을 낳는다. 영어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태풍에 다이아나, 베스 클래디스 등 여자를 이름만을 붙였고, 한국에서도 좋은 귀신이나 산신령은 남성이지만 나쁜 귀신들은 거의 모두가 여자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는 He, Him 등 남성 대명사로 받는다.

	상위중산층	하위중산층	상위노동자층	하위노동자층
남성	6.3%	32.4%	40.0%	90.1%
여성	0%	1.4%	35.6%	58.9%

▲미국 디트로이트 시민의 이중부정 사용 예. 이중부정은 비표준어로 계층이 낮을수록 많이 쓴다.

경멸적으로 여자를 가리키는 어휘는 많지만, 모욕적으로 남자를 자칭하는 말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갈보, 걸레, 메주, 암개, 절구통, 화냥년 등이 있다. 또, 바가지는 여자만이 굶고, 히스테리는 여자만이 부린다. 여자는 미혼(Miss)과 기혼(Mrs.)을 구별해서 부르면서 남자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Mr’라고 부른다.

이러한 차별적인 언어를 개선하여 언어의 평등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영어권에서 나타나고 있어 여성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균형을 없애려는 지각있는 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Miss와 Mrs. 대신 Ms.(미즈)를 쓴다든가, chairman, freshman, mailman 대신 chairperson, freshperson, mailperson 등이 통용되고 있다. 태풍의 이름도 요즈음은 여자와 남자의 이름으로 번갈아가 짓는다. 미국의 어느 교파에서는 하나님을 만드신 남성일 이유가 없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성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찬양할 만한 일이지는 하나, 언어의 속성에 비춰볼 때 꼭 맞는 시도라고만 할 수 없다. chairperson은 수긍할 만 하지만 mankind나 sportsmanship을 personkind라든가 sportspersonship으로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자연적인 진화현상인만큼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언어를 바꾸려는 역지는 삼가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전제했듯이 언어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므로

남녀평등의 사회가 구현되면 언어도 자연히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남녀의 언어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1960년대 들어와 사회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경지를 개척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윌리엄 러브보(William Labov)교수에게 의하면, 여자의 언어가 역사적으로 남자의 언어보다 보수적 경향을 나타내며 따라서 여자의 언어가 더 오래된 고형(古形)임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남녀의 언어차이는 남자가 언어의 변화를 겪을 때 여자의 언어는 얼마동안 따르지 않는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된다. 밖에서 활동하는 남성의 언어가 혁신적임에 비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언어는 보수적이다.

여성언어의 보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과도 결부된다.

위의 표에서 여성의 언어가 체계적으로 남성의 언어보다 표준어에 더 가까움을 볼 수 있다. 남자는 거칠고 남성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자랑으로, 혹은 남자의 위신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자는 좀더 공손하고 보다 표준에 가까운 언어를 씀으로써 실지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계층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려는 의도가 여성에게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여성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과연 그 특징들은 여성언어에만 나타나는가 검토해 보자.

여성언어학자 라코프(R. Lakoff)는 여성언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울타리 치기

꼼꼼한 경우에, (남)사장은 매사에 자상하고 여사장은 사소한 일에 까다롭다고 한다. 끝까지 일할 때, 남자는 관찰한다고 하고, 여자는 시간맞추어 일을 끝낼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는 단호하다고 하는 반면, 그녀는 딱딱하다고 한다.

◀엄마와 딸이 고급음식점에 들어섰다. 남자 웨이터가 못마땅한듯 말한다. “우리는 남자만 대접하는 법이요” 엄마는 주저하는데 딸이 당당하게 말한다. “좋아요! 남자들 주문하죠”

“여기 좀 추운 것 같지 않니?” 남자를 같으면 그냥 “여기 좀 춥다”하고 자신있게 말했을 터인데, 여자들은 주저주저하며 의견표시를 한다는 것이다.

2) 과장되게 공손한 말투: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남자같으면 “문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여성의 지나친 공손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만큼의 지위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의 척도가 되는 그들의 언어수준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3) 부가 의문형을 선호한다: “철수 거기 있지, 그렇지?” “철수 거기 있지?”하면 될 것을. 이것은 “울타리 치기”와 비슷한 여성의 주저성을 말해 준다.

4) 허황된 표현: “어머나”, “우아해”, “멋있어”, “고상해”, “사랑스러워” 등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의 인격이 올라가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여성들, 특히 “상류층”의 여성들이 즐겨 쓴다고 한다.

5) 유모어 감각의 부족: 여성들은 농담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남성들이 하는 농담도 요점을 놓치는 등 이해를 못해 즐거움을 못한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다. 왜냐하면 유모어란 원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여러면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에 활발해진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여성언어의 커다란 자극을 준 라코프의 논문이 1975년에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위에 나열한 여성언어의 특징들은 여성언어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았었다. 1980년에 그 이론을 뒤엎는 조사연구 논문이 나왔으니 그것은 오바르(W. M. O'Barr)와 애틀킨스(B. K. Atkins)의 ‘여성언어’인

어’인가, ‘권력없는 언어’인가? (Women's Language or Powerless Language?)이다.

여성언어, 보수성 강한 표준어에 더 민감하다

이 논문은 미국 법정에 선 증인들의 언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 증인들의 남녀별 언어를 분석해본 결과 ‘여성언어’라는 것은 ‘권력없는 언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없는 언어’는 여성에게 뿐 아니라 ‘권력없는’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성언어를 쓴다고 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힘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여성언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인다는 말이다.

여성언어의 특징들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에게도 적용되므로 오바르와 애틀킨스는 ‘여성언어’를 ‘권력없는 언어’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을 또한 역으로 말하면, ‘힘있는 여성’은 여성언어의 특징들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영향력있는, 당당한 여성들은 여성스런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국사회에서 그런 의식구조나 발상은 다행히도 전근대적 유물화되어 가고 있으며, 하루빨리 남녀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아니 언어의 평등을 통하여 남녀가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아가야 하겠다.

“여성들이여, 커피 만들기보다 정치를 합시다!”라고 외치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자신감에 넘치고 즐거운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듯 하다.



홍연숙 교수는 한국사회 언어학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